

목어

건강 중독증 시대

찌는 듯한 열대야보다 더 지겨워 보이는 한국 의학(醫藥)분업 갈등 현상과는 달리 지금 세계 의학계는 환상적인 꿈의 실현을 위해 막 달리기 경주를 시작하고 있다. 인간 유전자 지도의 완성이 그 꿈의 실현을 고무해 주고 있는 것이다. 환상적인 꿈의 내용은 질병과 고통 없는 삶, 수명의 무한 연장 등으로, 그야말로 이승의 삶 자체를 천국의 삶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아닌 가. 그 꿈은 동서양 의학의 시초부터 싹터 있었고 오늘날까지의 경이로운 의학발전 역사를 견인해 온 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같은 의학 및 의학의 무한발전 전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죽음과 질병에 맞서기만 하는 인간들의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쯤 뒤집어 생각해 보는 일도 의미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의학의 관심은 당연히 인간의 건강에 있다. 따라서 건강을 최대 선(善)으로 삼아 무조건 이를 추구한다. 그래서 어쩌면 건강 중독증이 현대를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건강을 위해 헬스클럽에 가고 운동을 하고 춤을 추고 단식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종교적인 명상이나 불교의 참선수행도 '건강에 좋아' 하고 있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태어남을 고통으로 보는 것은 태어남이 노 병사, 즉 늙고 병들어 죽는 그 첫 과정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배워서 안다. 병들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아 있는 것이 아닐까. 늙고 죽는 일 역시 마땅히 거로 결코 피하려 할 약(藥)은 아닌 것이다.

과학적으로도 아픔이나 두려움 등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긴 하지만 그 자체가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본다. 정상적인 방어기능으로 더 큰 위험을 경고해주는 장치라는 것이다. 사람의 기본정서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노여움과 슬픔이 있어 조화를 요구한다.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과연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노여움과 슬픔을 제거한 인생이 과연 멋진 수만 있을 것인가. 질병과 고통 죽음을 피하려 할 약으로 삼아 발전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현대의학을 걱정스레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징지(언론인·복지논설위원)



◇교학 중심의 신도교육이 오히려 실천적 불자상 정립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열린 신도교육 체계화 공청회.

교육 내용-방법 체계화 미흡

신도교육 왜 표류하고 있나

"가르치면 골치" 일부 스님들 비판론

선어록 몇권 읽은 신도 '불교 다 아는 양'

신도교육은 1973년 대한불교 대원회에 의해 불교교양대학이 설립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한불교대학이 세워지기가 전 종단과 사찰 차원의 신도교육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기록적인 실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당시의 한국불교에서 종단이나 사찰이 굳이 신도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왜 신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무엇보다 종단과 사찰에서 신도교육의 방법과 내용,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이는 스님들 사이에 '신도를 가르치면 골치가 아파진다'는 '신도교육 무용론'이 팽배해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85년 이후 불교교양대학이 점차 늘어나면서 사찰에서도 신도교육을 위한 기초교리 강좌를 개설하는 등 양적인 팽창을 보

우현)은 '신도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스님들의 교육적 리더십 부재로 신도들의 교육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불교교양대학이 이념과 목표 설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도 신도교육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다. 불교교양대학의 전문 강사 없는 자체 강의, 학사 관리 직원의 부재, 재원 창출을 위한 교육 이외의 활동과 신앙따로 생활따로 식의 교학 위주의 교육 내용은 신도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신도교육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교리적 지식전달의 현행 신도교육은 재가불자들이 선어록 몇권 읽고 불교를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교육은 필요없다는 식의 기형적인 불교적 인간형을 양산하는 폐단을 낳기도 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신도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정립, 학자나 평론가가 아닌 불교 실천활동가로서의 불자들이 만드는 교육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영동 전국교법사단장은 "회일화된 통일 교재와 교육과정만을 강조하다보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양화된 교육 방법을 사용하되, 근본이념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신도들의 개인차를 고려,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도교육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유지와 발전의 명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먼저 신도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종단과 사찰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신도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재계 사찰의 신도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신도교육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필선 기자

범계따른 10가지 수행법

그동안 조계종의 징계제도에 대해 사회법을 상당 부분 차용, 운용함으로써 불가의 전통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19일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가 주최해 열린 '징계제도 및 징계자 관리 방안 개선' 세미나에서도 승가의 청정성을 회복하고 화합 승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율장정신으로의 복귀와 율장의 현대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송광사 율원 교수 지관스님은 "율장에서의 갈마와 참회법은 교단의 청정성 회복과 화합 승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며 사분율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참회법을 소개했다.

△불공주(不共住): 바라이죄(살생, 음행 등)를 범했을 때 교단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요즘의 말년에 해당한다.

△별주(別住): 죄를 숨겼을 때 숨긴 날 수 만큼 독방에 거주하게 하며 죄를 참회하게 한다. 벌주 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마나타 기간(6일)을 가진다.

△마나타(別住): 위의 별주보다는 가벼운 독방거주의 참회법이다. 마나타 기간 중에는 비구의 좌석 중에서 가장 밑에 앉는다.

△사재(捨財): 부당하게 재물을 소유했거나 혹은 재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그 재물을 승가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것으로 끝난다.

△방수(放遂): 비구가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관계를 지어 신자들로 하여금 신심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했을 때에 부과하는 참회법으로, 머물고 있는 지역을 떠나게 한다.

△차지(差止): 교단이 범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백을 요구할 때도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참회법. 이때는 승려로서의 권리를 일시 정지시키고 다른 지역에도 그 내용을 알린다.

△범단형(梵壇形): 특빈이라고도 하며, 고만(高慢)하여 화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무시하고 말을 걸지 않고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가책(賈責): 분쟁을 조장하고, 삼보를 비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참회법. 대중 앞에서 가책하고, 권리를 일시 정지시킨다.

△의지(依止): 사소한 범계를 짓는 자에게 권리를 일시 정지시키고, 율법에 능통한 스님 밑에서 공부하도록 한다.

△영사죄(令謝罪): 신자(재가자)에게도 이르지 못한 일 또는 손해를 줄 경우에 교단으로부터 위임받은 비구와 함께 신자 집에 가서 사죄하게 한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현실의 무명 깨우치는 과정 밝히자

②선의 대중화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선의 대중화

'선의 대중화'를 말하면서 친절하고도 정확한 지도로서의 선수행론 정립을 강조하는 까닭은 오늘날 보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이론'이 상당 부분 대중의 스승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선불교에서는 눈앞의 선지식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스승의 계도가 없이 혼자 수행하다 보면 독단에 빠지기 쉽고 때로는 심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굳이 선수행이 아니라고 해도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나 좋은 스승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한다고 해서 인연이 닿는 것도 아니며, 인연이 닿는다고 해서 반드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이론이다. 말에 미혹되어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글은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스승을 모시지 않는 수행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은 이러한 이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수행론의 정립에 못지 않게 선의 대중화의 관건이 되는 것이 일상성의 문제이다. 소위 대중불교는 소위 소승불교의 소승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과 함께 한다는 이상을 내세움으로써 명분을 얻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대중불교를 표방하는 한국의 선불교가 내심 은근히 경하고 있는 동남아 등지의 소위 소승불교보다 더 큰 수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군더더기를 걸러내고 일상의

행주좌와와 어묵동정 가운데에서 바로 불성을 가리켜서 부처를 만든다는 선불교를 두고 일상성과 대중성을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만저만한 결례가 아니지만, 선지(禪旨)가 관념화되고, 범거량이 의례화되었다는 비판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선이 활구(活句) 법문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쯤 사구화(死句化)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터이다. 그렇다면 왜 선문답이나 선어(禪語)가 죽은 말이 되어버리는 것일까?

안목산이 양귀비를 찾을 때 귀비의 몸종인 소옥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음이 소옥에게 있어서가 아니다. 말이 제 역할을 하려면 말속에 담겨 있는 언의(言外)의 뜻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손가락 끝에만 매달려, 달을 보는 사람은 드물다. 역대 조사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불성을



서정형 서울대 강사·철학

드러내 보여주어도 불성을 본 사람 역시 참으로 드물다. 그러다 보니 조사들의 활활발발한 언어 동작은 그대로 죽은 말, 죽은 동작이 되어 관념이 되고 화석의 된다.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실로 불성이라는 것 자체가 관념 이상의 것이 못된다. 말이 관념이 불성이라는 것은 일상적 경험과 같은 의미에서 경험되는 난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을 확인하는 것(覓性)이 궁극적 목적지 선수행이 오로지 불성에 대한 한 가닥 믿음에 의지한다는 순환 논리에 빠져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의 현실이 그렇다. 화려하고 과장된 언사에 가려 선은 이렇듯 자칫 우리의 일상적 삶과 별로 상관이 없는 불성과 깨달음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선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 발 밑(脚下)의 현실을 떠나 있지 않으며 따라서 본래 대중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불성의 보편성을 말하고 불성에 근거하여 원돈(圓頓)을 강조하기 이전에 현실의 무명(無明)과 무명을 깨쳐나가는 과정(次第)을 말해야 하며,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도 열반에 기대어 생사를 경시하던 오만에서 벗어나 나날의 '하찮은' 삶 속에서 열반의 의미를 다시 물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근본을 참고해야 한다. 과거의 문명이 한계에 부딪혀 자기 모순이 노정될 때 고전으로부터 새로운 영감을 얻듯이 한국의 선불교 또한 근본불교의 덕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선수행이라는 것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며, 삶의 진실을 보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억압과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선은 대중의 것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논설고문: 고은
인쇄인: 김규석
www.buddhanews.com

일타 큰스님이 남긴 최후의 법문집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이 시대의 청정오사 일타 큰스님이 들려주는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법문

내 마음 속의 부처를 찾는 길
좌선수행법
靜坐要訣 / 六妙法門 / 重葢止觀 / 四念處
선(禪)과 교(教)를 아우른 천태지의 대사의 지관좌선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법문 네 가지.